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환경시장 진출

환경보전협회, 한국관 운영

일본 최대의 환경전시회 - 오사카 NEW EARTH 2005

일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관 마련,
참관단 파견

일본 최대의 환경전시회가 지난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오사카 국제전시장(INTEX OSAKA)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오사카 NEW EARTH 2005」은 일본 환경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매회마다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세계 각국의 직접적인 환경산업의 마케팅과 홍보, 연구 발표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 최대 환경전문 바이어가 참관하여 실질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참가국은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으로 총 12개국에서 320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방문객수도 5만명에 이르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한국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바이오하이테크, 삼진정밀,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 한국전력기술 등 총 13개 업체(한국 홍보관 포함 16부스)가 참가하여 자사의 환경기술 및 제품 등을 홍보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국내 환경시장 현황 및 기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K)등을 소개하여 참관객 및 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보였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 환경기업들이 일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우리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한국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을 구성하여 동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중국 최대 규모의 상해국제공업 박람회(SIF2005)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관 마련,
참관단 파견



다양한 산업의 종합전시이며, 중국 최대 규모의 공업박람회가 지난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중국 상해 신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상해국제공업박람회(SIF2005)」는 상해시 정부(CCPIT)의 대대적인 후원을 받고 있으며, 특히 IT와 환경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우리 환경기업들에게 호기를 제공할 전망이다. 국가급 초대형 박람회라는 명칭에 걸맞게 상해국제공업박람회의 전시면적은 총 8만5백㎡, 이는 국내 코엑스 태평양홀의 약8배에 달하는 규모다. IT, 환경과에너지, 전자, 전기설비와 자동화설비, 자동차, 공업부품 등 아이템별로 각각 전시장이 구성되었다. 주요 참가국은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등으로 총 20개국 1,300개업체가 참여하였으며 방문객수도 60만여명에 이르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한국관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나노케미칼, 오즈기술, 제너럴시스템, 코리아에어터보 등 총 10개 업체(한국 홍보관 포함 16부스)가 참가하여 자사의 환경기술 및 제품 등을 홍보하였다. 환경보전협회는 환경부의 환경정책 및 국내 환경시장 현황, 국제환경기술전시회(ENVEX)등을 소개하였으며 상해시 환경보호산업협회 관계자들과 참가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양국 환경산업·기술 등에 관한 정보교류 및 환경산업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향후 우리 환경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환경보전협회에서는 중국환경시장 확대 개방에 있어 우리 환경산업체의 적극적인 판로개척과 한국환경산업의 수출마케팅 전략 강화의 목적으로 한국측 참관단을 구성하여 동 전시회를 참관하였다. 한국측참관단은 우리나라 환경산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중국 유망 환경전문업체의 환경설비·기술 바이어 상담, 중국의 환경기술 및 산업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상해시 폐기물처리장을 견학하여 현 중국의 폐기물 처리 공정도 견학하였다.

일본의 환경시장 동향과 전망

폐기물처리서비스 및 재생자원이용 분야 가장 높아...

일본은 개별 국가의 규모로 봤을 때, 미국 다음으로 큰 환경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등 기초 환경기술·설비분야는 거의 설치가 완료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서는 3년에 한번씩 환경산업규모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2년 통계작성의 결과, 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에 47조 2천억엔, 2020년에는 58조 4천억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고용규모에 있어서는 2010년 111만 9천명, 2020년에는 123만 6천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장규모와 고용규모가 큰 산업분야는 폐기물처리서비스의 제공(일반폐기물의 처리, 통상의 산업폐기물처리, 중간처리, 수집·운반 등)과 재생자원이용(각종 중고품유통, 자원회수 등)분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순환형사회구축" 등 정부의 강력한 환경정책 시행의지와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조직 및 경영이념 정비 등 시장 활성화 요인에 힘입어 청정기술, 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환경산업분야는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고용규모 추정〉

환경 산업	시장규모(억엔)			고용규모(명)		
	1997	2010	2020	1997	2010	2020
A. 환경오염방지	95,936	179,432	237,064	296,570	460,479	522,201
- 장치 및 오염방지용자재의 제조	20,030	54,606	73,168	27,785	61,501	68,684
1. 대기오염방지용	5,798	31,660	51,694	8,154	39,306	53,579
2. 배수처리용	7,297	14,627	14,728	9,607	13,562	9,696
3. 폐기물처리용	6,514	7,037	5,329	8,751	6,676	3,646
4. 토양,수질정화용(지하수포함)	95	855	855	124	785	551

| 환경정보 I |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환경시장 진출

자료 : 일본환경성 보도자료 (2003. 5. 29)

환경 산업	시장규모(억엔)			고용규모(명)		
	1997	2010	2020	1997	2010	2020
5. 소음,진동 방지용	94	100	100	168	122	88
6. 환경측정·분석·평가용	232	327	462	981	1,050	1,124
7. 기타	-	-	-	-	-	-
- 서비스제공	39,513	87,841	126,911	238,989	374,439	433,406
8. 대기오염방지	-	-	-	-	-	-
9. 배수처리	6,792	7,747	7,747	21,970	25,059	25,059
10. 폐기물처리	29,134	69,981	105,586	202,607	323,059	374,186
11. 토양,수질정화(지하수포함)	753	4,973	5,918	1,856	4,218	4,169
12. 소음,진동방지	-	-	-	-	-	-
13. 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	-	-	-	-	-
14. 환경에 관한 엔지니어링	-	-	-	-	-	-
15. 분석, 데이터수집, 측정, 평가	2,566	3,280	4,371	10,960	14,068	17,617
16. 교육, 훈련, 정보제공	218	1,341	2,303	1,264	5,548	8,894
17 기타	50	519	987	332	2,487	3,481
- 건설 및 기기의 탈착	36,393	36,985	36,985	29,796	24,539	20,111
18. 대기오염방지설비	625	-	-	817	-	-
19. 폐수처리설비	34,093	35,837	35,837	27,522	23,732	19,469
20. 폐기물처리시설	490	340	340	501	271	203
21. 토양,수질정화설비	-	-	-	-	-	-
22. 소음,진동방지설비	1,185	809	809	956	536	439
23. 환경측정,분석,평가설비	-	-	-	-	-	-
24. 기타	-	-	-	-	-	-
B. 경부하저감기술및제품 (장치제조,기술,소재,서비스의 제공)	1,742	4,530	6,085	3,108	10,821	13,340
1. 환경부하저감 및 자원효율형 기술	83	1,380	2,677	552	6,762	9,667
2. 환경부하저감 및 자원효율형 제품	1,659	3,150	3,408	2,556	4,059	3,673
C. 자원의 효율적 이용(장치제조, 기술, 소재, 서비스제공, 건설 및 기기의 탈착)	201,765	288,304	340,613	468,917	648,043	700,898
1. 실내공기오염방지	5,665	4,600	4,600	28,890	23,461	23,461
2. 물공급	47	594	51,250	1,040	2,329	2,439
3. 재생소재	78,778	87,437	94,039	201,691	211,939	219,061
4. 재생가능에너지시설	1,634	9,293	9,293	5,799	30,449	28,581
5. 에너지효율 및 관리	7,274	48,829	78,684	13,061	160,806	231,701
6. 지속가능한 농업, 어업	-	-	-	-	-	-
7. 지속가능한 임업	-	-	-	-	-	-
8. 자연재해방지	-	-	-	-	-	-
9. 생태관광	-	-	-	-	-	-
10. 기타 (자연보호,생태환경,생물다양성 등)	107,940	137,201	152,747	218,436	219,059	195,655
총 계	299,444	472,266	583,762	768,595	1,119,343	1,236,439

중국의 환경시장 동향과 전망

1 수출 및 투자 현황

한·중 양국간 교역규모는 사상 최고치인 570억불로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日, 美에 이은 3위의 수입국

	2001년	2002년	2003년
• 對中수출(억불)	181.9	237.5	351.1
• 對中수입(억불)	133.0	174.0	219.1
• 무역흑자(억불)	48.9	63.5	132.0

| 환경산업 수출 현황 |

'03년도 우리의 대중국 환경산업체 수출액은 1,042억 원으로서 18% 차지

-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은 2003년 총 5,819억원(27개국, 199건)으로 총액규모, 진출업체수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 지역별 주요 수출사례 (2003~2004)

호남성 (위생매립지 : 2,500만불), 광둥성 (배연탈질설비 : 783만불), 하북성 (소각장 : 1,100만불), 중국전역 (자동차 배연촉매 : 1,970만불), 기타 (발전소 집진설비 : 580만불)

2 환경시장 및 환경관리 현황

- 10·5계획 환경부문의 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총 7,000억위안 투자 예정
(대기관리 : 3,000억위안, 수질관리 : 2,500억위안, 폐기물관리 : 900억위안, 자연보호 : 500억위안, 모니터링, 정보수집 : 100억위안)
- 선진국 시장이 성숙단계인데 반해 중국 환경시장은 초기단계로 향후 15~20년간 15~20% 성장 전망 (사후오염 처리기술·설비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가격요소가 구매선택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작용)

- 차기 11차 5개년 계획 기간('06-'10)에도 환경부문의 투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全人大 10기 2차회의('04.3월)에서 지역격차 해소, 환경보전 등에 역점을 둔 '인본주의 균형발전론'을 천명)
- 분야별로는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장 등 도시환경기초시설 건설에 절반 이상 투자
- 경제적 수단, 총량규제 등 선진 환경관리정책 도입
- 2003년 상반기 SARS 발생을 계기로 의료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정부투자를 확대 ['위험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설계획('04. 1. 19일)]에 따르면 2006년 까지 약 149억위안(약 2.24조원)을 투자할 계획]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중국 진출 전략

1 중점 진출지역·분야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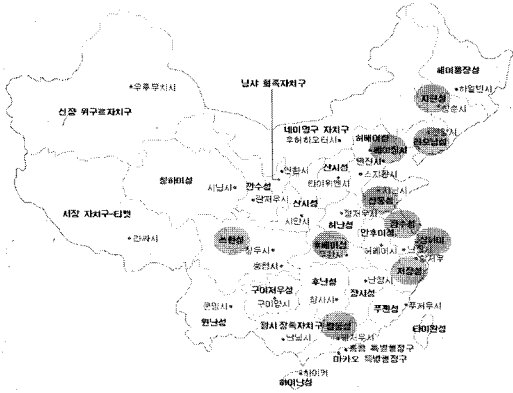
① 중점 진출지역 선정

중앙정부 투자정도, 시장 규모, 교류·협력관계 등 고려하여 10개 최우선 지역으로 상해, 요녕, 북경, 산둥, 사천, 호북, 광둥, 길림, 절강, 강소성을 선정

<10대 우선 진출지역 선정>

순위	10·5 계획 중점사업 투자 지역	환경 산업 매출액 (2000년)	업체 선호도	1인당 GDP	한중 경제 교역 규모	협력 관계 (무순)	종합 순위
1	북경시	절강성	북경시	상해시	광둥성	요녕성	상해시
2	산둥성	강소성	산둥성	북경시	강소성	사천성	요녕성
3	하북성	산둥성	요녕성	천진시	산둥성	산둥성	북경시
4	호북성	광둥성	상해시	절강성	상해시	호북성	산둥성
5	중경시	요녕성	광둥성	광둥성	천진시	북경시	사천성
6	강소성	호남성	길림성	강소성	절강성	상해시	호북성
7	상해시	하남성	사천성	북경성	요녕성	산서성	광둥성
8	광서성	북경성	흑룡강성	요녕성	북경시	호남성	길림성
9	하남성	상해시	하북성	산둥성	북경성	길림성	절강성
10	사천성	하북성	천진시	흑룡강성	길림성		강소성

중국 진출 우선지역



② 중점 진출분야 선정

행정·시장 수요가 높고 중국의 기술력이 부족한 분야를 위주로 중점 진출분야 선정

- 수 질 : 오폐수처리 및 중수이용 통합기술·설비, 고농도 폐수(매립지침출수 및 축산 폐수)처리기술·설비, 소규모 정수처리 기술·설비
- 대 기 : 중소규모 발전소 탈황 기술·설비
- 폐기물 : 의료폐기물 소각기술·설비, 유해폐기물 처리기술·설비

② 지역별 유망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

- ① 환경부·업계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② 省별 시범프로젝트 발굴·추진
 - 산동·북경('04. 10~), 절강·강소('05. 上~), 호북·광둥('05. 下~), 상해·하북('06. 上~)

③진출 거점의 지방화

- ① 『한국 환경산업·기술 지방설명회』 개최
- ② 한-지방성 환경산업협력 촉진위원회 운영
- ③ 한국환경산업·기술DB 전시모니터 설치
- ④ 한-지방성 환경산업센터 설치
 - '06~'08년 : 우선 진출지역을 추진성과·전망이 높은 지역을 위주로 연 1개씩 단계별 설치

④ 다양한 금융지원책 활용

- ① EDCF 자금 활용방안 협의
 - '04. 下 : EDCF 자금의 중국 환경분야 투입 확대방안 협의 (환경부-재경부)
- ② 정책금융 지원 활용방안 검토·추진

⑤ 한·중 공동기술개발

- '04. 6월 : 1차년도 사업 협약체결 및 착수 (6개)
- '04. 下 : 공동기술개발에 관한 한·중 정책협의 실시
- '05~'08년 : 공동기술개발 계속 추진



※『오사카 NEW EARTH 2005』, 『상해국제공업박람회(SIF2005)』한국관 참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결과 내용은 홈페이지(www.envex.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